



석유사업기금 징수액 조정

정부는 석유도입시 부과하는 석유사업기금을 현행 7.68\$/배럴에서 2.66\$/배럴 증액된 10.34\$/배럴로 상향조정(수입엘피지는 톤당 66\$로 불변)하여 '88. 9. 22 통관분부터 적용키로 했다.

정부는 금월 기금을 조정함에 있어서 기금산정기준을 종전의 전월원유도입가격 및 금월 10일자 환율을 적용하던 방식을 금월 원유도입예정가격 및 환율전망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으며, 이에따라 금월 기금산출시 원유가는 12.93\$/배럴, 환율은 700원/\$이 적용됐다.

이와같은 기금산정 기준변경은 유가관리상의 비용과 실발생비용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정부는 앞으로도 원유가 및 환율변화추세가 감안된 원유도입 예정가격 및 환율전망치를 기금산정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국내유가와 실발생비용간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국내유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.

(1) 調整原則

- 原油導入單價 下落 및 換率下落에 따른 油價調整 要因을 全額 基金 調整으로 吸收
- 追加 精算益 發生 抑制를 위해 基金算定 基準을 變更

구분	현행	수정
적용원유가	전월실적 (시현주의)	전월실적 및 금월도입 계획가격등을 비교하여 적정 전망치 적용
적용 환율	해당월 10일자 환율 (시현주의)	환유추세를 감안하여 적정 전망치 적용

(2) 調整基準

- 原油導入單價 : 12.93\$/B('88. 8. 11~9. 10 현물가격

평균 원유가)

- 換 率 : 700원 / \$ ('88하반기 평균 환율 전망치)
 - 關 稅 : 不變(10%)
 - 附 帶 費 用 : 運賃, 保險料率 및 附帶比率 '87 實績 反映
 - 金 融 費 : 利率率 및 借入 期間 '87 實績 反映
 - 精 制 費 : '87 精算 基準 精製費 再算定 結果 反映
 - '88. 1. 1~9. 10 假精算益 中 未精算分 (667억원) 反映
- | 발생 | 기정산 | 금변정산 |
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'88 가정산익(억원) | 2,382 | 1,715 |
| '88 가정산익(억원) | 2,382 | 1,715 |
- *연말 정산손익 규모 추소를 위해 항차별 기금 납부실적 반영

3. 調整要因

구분		'88. 8월	'88. 9월		
			현행	수정	
전제	원유가(\$/B)	13.78	13.78	12.93	
	환율(원/\$)	726.5	722.9	700.00	
기금징수(\$/B)	실기금	필수기금	0.50	0.50	0.50
		원유가차액	5.50	5.50	6.62
		환율차액	0.32	0.47	1.30
		유가사전인하*	-1.60	-1.63	-1.69
	소계	4.72	4.84	6.73	
	정산익 환수기금	2.96	3.49	3.61	
합계		7.68	8.33	10.34	

* '88. 6. 8 유가조정시 -1,076원/B 상당액을 추가인하 재원으로 사용(환율 사전반영과 동일한 효과로서 유가 조정시 적용환율은 736.3원/B이나 실제 적용환율은 689.3원/B)

(參考資料 1)

國際原油價 推移

(單位：\$ / B)

	'86. 12	'87. 12	'88. 3	'88. 6	'88. 7	'88. 8	'88. 9(전망)
W T I	15.35	18.50	15.70	17.65	15.00	16.10	-
B r e n t	14.75	17.65	14.35	16.35	13.95	15.60	-
A / L	13.75	16.96	14.74	16.28	14.47	15.28	-
D u b a i	13.80	16.40	14.00	14.70	12.45	13.75	- ₂
國內平均導入價	12.53	17.14	15.02	14.85	15.38	13.78	12.93
基金徵收額	9.47	4.66	6.19	5.48	5.34	7.68	10.34

(註) 1) 국제가는 해당월 1일가격

2) '88. 9. 1~10일 선적기준 평균단가

인도네시아 정유공장 신규건설 추진

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페르타미나社는 英國 등과 합작으로 10만 B/D 규모의 정유공장을 동부 자바에 위치한 프로볼링고에 건설할 계획이다. 89년에 착공될 이 정유공장은 수출용 제품정제 전용으로 투자비는 7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.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제품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수출을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.

현현재 인도네시아는 5개 정유공장, 90만 B/D의 정제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, 최근의 가동율은 75% 수준에 이르고 있다.

이와 같은 신규 정유공장 건설배경에는 한정된 석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인도네시아정부의 석유산업구조개편의지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. 87년 현재 인도네시아의 석유확인매장량은 84억배럴로 OPEC 매장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.3%에

불과하며, 특히 가채년수는 17.6%으로서 OPEC 산유국중 최하위이다.

86년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원유생산은 125만 B/D, 수출은 79만 3천 B/D였으나, 87년에는 원유생산이 11만 8천 B/D, 수출이 70만 B/D로 각각 감소했다. 이에 따라 생산원유중 수출비중은 86년의 63.4%에서 87년에는 60.4%로 줄어들었다.

인도네시아의 석유탐사는 지난 82년 이후 계속 감소되어 왔고, 석유생산도 오는 90년대부터는 감소할 전망이다. 반해 국내석유소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3%로 증가하고 있어 석유수출여력을 감소시키고 있다.

인도네시아정부는 석유수출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정제능력확대로 임가공 및 제품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원유수출형태를 중단할 계획이다.